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요/약/보/고/서

# 익산시 식품기업 지역농산물 공급 체계 구축 용역

2023. 12.

**RANETCCOP**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협동조합



#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 협동조합 이사장 최 문 식

연구수행기관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 협동조합
책임연구원	이 사 장 : 최 문 식
연구 원	팀 장 : 장 현 욱
연구보조원	연구 원 : 박 상 준
	연구 원 : 이 유 정

## 제1장. 연구배경 및 필요성

### 01 연구배경

####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익산시는 식품산업의 메카로 부상

- 동북아 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17년 전라북도 익산시에 산업단지 조성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22년 말 분양률은 72.4%로 126개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원료 농산물을 입주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달체계 필요

#### □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다각화 추진

- 익산시 푸드플랜을 통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으며 영세농에 안정적인 판로 제공가능

#### □ 전국 최초 농식품 기반의 상생모델 익산형 일자리 선정으로 농업과 식품 분야 협력 강화

- 익산시는 국내 첫 농식품 상생모델인 익산형 일자리에 선정되어 지역의 핵심 산업인 농업과 식품의 장점을 결합한 식품 분야 생태계 강화를 위한 노력

### 02 연구 필요성

#### □ 기업에서 사용하는 대부분 품목이 익산에서 충분히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공급 연결 주체 부재, 공급 체계 미비 등으로 지역산 조달에 한계가 있음

- 익산시 식품기업에서 사용하는 원재료 중 농산물 비중이 높은편이나, 대부분 가격경쟁력 및 안정적 공급원 확보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타지산 및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어 지역산 조달을 위한 공급 체계 마련 필요

#### □ 익산시 농산물 가치 증대로 농가와 식품기업의 상생 협력 증대 필요

- 조직화를 통하여 필요한 기술 재배 교육을 통해 익산시 농산물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으며, 식품기업은 저렴한 가격의 고품질 농산물 가공을 통하여 식품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가능

#### □ 관내 식품기업에 지역농산물 안정적 공급으로 지역농산물 활성화 기여

- 식품기업에 지역농산물 안정적 공급으로 유통 단계를 최소화한 신선한 농산물의 공급으로 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더불어 지역농산물 활성화 증대

## 제2장. 현황분석

### 1) 익산시 농업 현황

#### 01 농업 및 농가규모 현황

##### □ 익산시 농가 고령화로 인한 농가수와 농가인구 모두 감소 및 가구당 경지면적 축소

- 2017년 농가수는 10,922호에서 2021년 9,960호로 8.8%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2.2% 감소
  - 농가인구는 동기간 21.3%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5.7% 감소하고 있음
- 가구당 경지면적은 2017년 2.15ha에서 2021년 2.11ha로 0.04ha 감소
  - 논 경지면적은 동기간 1.67ha에서 1.66ha로 0.01ha 변화한 반면, 밭면적은 0.49ha에서 0.45ha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남
- 농가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사업 안정화를 위한 시설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필요

##### □ 익산시는 1ha 미만의 소농이 많은 구조로 장기적으로 소농의 참여 확대 필요

- 1ha 미만인 소규모 농가 비중이 전체 규모의 75.7%를 차지
  - 0.5ha 미만 농가 비중은 약 57.1%, 0.5~1.0ha 농가 비중은 약 18.6%로 나타남
- 1ha 미만 농가의 경지면적은 익산시 전체 면적의 25.2%이며 2.5ha 이상 면적이 5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경영체는 1ha 미만의 농가 비중이 높으나 경지면적은 2.5ha 이상의 대농 면적이 넓은 상황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대농이 참여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소농의 참여 확대 유도 필요

#### 02 농업 생산구조

##### □ 익산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산물 생산량이 높으며, 특히 식품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채소류 비중이 높아 식품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

- 2022년 기준 익산시 농산물 생산량과 생산액은 각각 178,194톤과 469,397백만원으로 나타남
  - 식량작물의 생산량은 114,510톤이며 생산액은 258,164백만원 규모
  - 원예작물의 생산량은 63,684톤이며 생산액은 211,232백만원 규모

- 원예작물 중 채소류 생산량 비중은 전체 원예작물의 90.4%, 생산액 82.4%의 비중으로 채소류 생산비중이 높게 나타남
- 2022년 기준 익산시 축산물 생산량과 생산액은 각각 106,746톤과 503,408백만원으로 나타남

#### □ 식품기업에서 주 원료로 사용하는 조미채소류의 생산량이 높음

- 양파, 대파, 생강 등 식품기업에서 사용하는 조미채소 생산량은 높은 편이나, 익산시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무, 마늘 등의 생산 비중은 낮은편에 속함

## 2) 익산시 식품기업 현황

### 01 익산시 식품기업 일반 현황

#### □ 익산시 관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총 219개사 정상 운영중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75개사, 국가식품클러스터 외 식품기업 144개사로 266개 중 219개사 정상 운영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익산시 식품기업 생산량은 26,655,090톤이며 매출액은 2,461,941백만원으로 조사됨
  - 국가식품클러스터(운영기업 기준) 기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외 식품기업 매출액은 각각 324,982백만원과 2,136,960백만원으로 나타남
  - 국내 매출액은 1,996,114백만원, 수출액은 465,827백만원이며, 수출의 대부분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외 식품기업의 매출임

#### □ 생산량이 100톤 미만인 기업은 70.2%, 생산액이 10억 미만인 기업은 63.7%로 영세한 기업의 비중이 높음

- 10만톤 이상 기업은 4개소이며, 10톤 미만 기업이 87개사로 가장 높은 비중
- 1,000억 이상 기업은 4개소이며 1억 이상~10억미만 기업이 89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 국가식품클러스터 외 식품기업 144개소 중 상위 4개 기업의 생산량과 생산액 비중이 매우 높음

- 익산시 상위 4개 기업은 (주)하림산업, (주)하림, (주)오리온 익산공장, 삼양식품(주) 익산공장이며 각각 전체 생산량과 매출액의 98.8%, 8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상위 4개 기업의 생산량은 25,833,384톤으로 (주)하림이 23,266,272톤, (주)하림산업

- 이 2,500,000톤 순이며, 상위기업 제외 140개사 합계는 44,185톤(0.17%)으로 나타남
- 매출액은 1,831,104백만원으로 (주)하림산업이 757,186백만원, (주)오리온 638,000백만원 순이며, 상위기업 제외 140개사 합계는 216,805백만원(10.1%)으로 나타남

## 02 익산시 식품기업 원재료 사용 현황

- 익산시 전체 식품기업 중 전라북도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기업은 62.3%로 높은편이나 상위기업을 제외한 식품기업은 38.0%로 타시도 및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음
- 익산시 관내 식품기업에서 사용하는 원재료는 연 2,327,432톤을 사용 하고 있음
  - (주)하림의 가금류 가공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제외하면 농산물은 약 53% 비중
  - 익산시 식품기업 전체 농산물(축산포함)은 도내 62.3%, 타시도 30.7%, 수입 7.0% 비중
  - 상위 5개 기업을 제외한 농산물은 도내 38.0%, 타시도 26.8%, 수입 35.2% 비중
- 식품기업 마다 동일한 품목임에도 사용하는 품위/전처리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식품기업이 요구하는 농산물 공급에 한계 발생
  - 단기적 관점에서 관내 전체 식품기업의 농산물 공급은 어려운 상황이며, 중장기적으로 인력 및 시설 보완 등을 통하여 점진적 확대 필요

## 3)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현황 및 계약재배 사례 분석

### 01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현황

- 2019년 농식품부 지역단위 푸드플랜구축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2021년 5월 재단 출범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는 푸드플랜의 실행 주체로써 공공급식 등 지역농산물을 공급 하고 있음
- 2022년 7월 기준 총 매출액은 3,607백만원이며, 직매장, 공공급식 등 영역에서 지역 농산물 공급 중
  - 2022년 푸드플랜APC 시설이 준공 되었으며, 2023년 이후 본격 사업 추진
- 농가 조직화는 2022년 56호에서 2023년 250호, 2024년 450호로 증대 예정이며, 추후 공급 체계 구축 시 현재 목표보다 더 많은 농가가 조직화 될 것으로 예상
  - 동기간동안 재배면적은 55.2ha, 190ha, 340ha로 점차 증진 목표

## □ 농가와 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익산시 식품기업에도 원물을 공급하고 있음

- 2023년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는익산시 관내 식품기업에 기업 원물공급을 진행중이며 유통단계 최소화 등으로 신선도가 높은 원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중
- 2023년 총 4개 기업에 110톤 이상을 공급하였으며, 대파, 양파, 아욱, 생강 등 기업에서 요구하는 품목 납품

## □ 1일 작업량은 1.5톤 규모로 추후 사업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익산시 관내 전처리 관련 기관(농협, 자활 등)과 연계 강화 필요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는 총 3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푸드플랜APC 및 저온유통창고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약 2,583㎡의 규모로 구축

## 02 계약재배 사례 분석

### □ 계약재배 상생 효과

- 지역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수익 증대 효과와 더불어 기업의 품질 향상 지도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
- 기업의 브랜드와 지역의 농산물 인지도 향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
- 지역주민들이 지역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며, 농가와와의 상생모델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단결과 상호협력 강화

### □ 계약재배 리스크

- 농산물 가격 변동에 의한 농가와 기업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재배를 위한 유인 요소(보조금, 사업비)가 사라질 경우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이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생산에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생산량이 감소하게 될 경우 가격 변동성이 큰 경우 계약주체 중 한 곳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제3장. 농산물 사용현황 분석

### 01 설문조사 개요

#### □ 설문 일시

- 2023년 09월 18일 ~ 2023년 11월 08일

#### □ 설문 목적

-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의 현황과 수요 파악
- 지역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시스템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 설문 대상

- 익산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국클기업, 국클 외 기업)
  - (재)익산시푸드통합지원센터취급 농산물 기업(커피, 포장재, 축산 등 제외)

#### □ 설문 주요 이슈

- 원재료 사용(가공품 사용)이 많지 않아 참여하기 어려운 기업 다수 발생
- 매년 비슷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아 불응기업 발생
-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안정적인 상황이 된다면 참여한다는 의견 다수  
→ 안정적인 시범공급 체계 진행 후 식품기업 대상 설명회 진행 필요

### 02 설문조사 주요 내용

#### □ 원료 구매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려사항은 가격조건과 품위/품질/가공적절성

- 원료 농산물 구매시 품위/품질/가공적절성 41.9% 및 가격조건 30.6%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수단임
  - 균일한 품위/품질/가공적정성을 위한 농가 조직화 및 기술교육 필요
  - 차액지원을 통한 관내 농산물 사용량 확대 필요

#### □ 익산시 관내 식품기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 농산물은 채소류가 많아 계절적 요인으로 관외산 사용량이 많음

- 익산시 농산물 관외산을 이용하는 이유는 필요한 물량 확보(26.5%)에 용이하기 때문으로 조사 됨
  - 참여 농가 확대를 통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원재료 물량 확보 필요



- **취급량 기준 무, 배추, 마늘 순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기업수 기준으로는 마늘, 무, 양파 순으로 원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
  - 관내산 농산물 사용률은 9.3%로 매우 낮으며 무, 대파, 배추 등의 관내산 사용량이 낮음
- **참여의향 기업의 품목별 사용기업수는 무, 양파, 마늘, 대파, 생강, 배추 순으로 사용기업의 수가 많으며, 취급량 기준 무, 배추, 양파 등 조미채소 사용량이 높게 나타남**
  - 참여의향 기업의 관내산 사용률은 전체 기업(9.3%)에 비해 6.2%p 높은 15.5%이나 관내산 사용량이 높지 않아 가격, 품위, 가공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품목 위주로 비율 확대 필요
- **취급액 기준 마늘, 무, 배추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내산 비중은 낮은편에 속함**
  - 취급액 기준 관내산 농산물 비중은 13.4%로 취급량에 비해 4.1%p 높은 수치이나, 익산 농산물 활용 증대로 취급액 증대 필요
- **참여의향 기업의 취급액은 무, 배추, 마늘, 양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내산 사용 비중은 32.4%로 전체식품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관내산 사용을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익산산 농산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관내산 취급액 비중 증대 필요
- **식품기업 주원료 상위 8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물량, 취급액 각각 73.7%, 71.2%로 높게 나타남**
  - 식품기업에서 주 원료부터 관내산 활용증대를 위해 순차적으로 공급 체계 구축 필요
    -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상위품목부터 진행 후 안정화되는 시점부터 품목 점차 확대
- **익산시 관내 생산물량 중 식품기업 조달 한계물량 비교 분석 시 필요 물량 공급량 부족 품목 발생**
  - 익산시 식품기업에서 사용하는 주품목의 조달 한계 물량은 15,949톤, 112억 규모 추정
    - 식품기업에서 사용하는 주 품목의 생산량 증대를 통하여 점진적 물량 확대 필요

## 제4장. 공급 시스템 수립

### 1) 공급시스템 수립 필요성

□ 농산물 특성상 가격변동이 크기 때문에 원가 예측이 어려워 농가와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상황 발생

- 농가의 소득향상과 기업의 안정적 원료 수급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필요
- 관내 농산물이 도매시장 평균가격에 비해 높은 경우 기업리스크 확대와 더불어 농가와 계약재배 이탈 문제 발생
  - 관내산 농산물을 사용할 시 생산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외산 농산물을 사용
  - 농가의 경우 계약재배로 얻는 이익보다 도매시장 판매시 농가의 수익 증대로 계약재배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 발생
- 원별 가격 변동폭이 큰 농산물을 사용하는 기업은 원가 예측 불가로 안정적 경영에 애로사항 발생
  -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의 가격 예측이 어려워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원가를 산정하는데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
  - 특히 중소식품기업은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에 문제가 생기며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음

### 2) 공급여건 분석

□ 익산시 현황, 농산물 사용 현황 등 종합적 여건 분석 결과 전 품목 농산물 진행 어려움

- 공급가능한 품목 선정을 위해 지역여건, 기업수요,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처리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공급품목 선정

□ 지역여건, 기업수요,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처리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총 10개 품목 중 종합적 판단을 통하여 우선 공급이 가능한 5개 중점품목과 추후 확대 가능한 육성품목으로 구분
  - 기업의 사용량과 지역내 생산량, 계약재배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체계 수립

- 최종 여건을 고려하여 중점품목 5개 품목(양파, 대파, 생강, 마늘, 무) 진행 적합

#### □ 연차별 목표 설정으로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

- 관내 생산량, 식품기업 한계조달물량,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등 종합적인 검토로 연차별 목표량 설정
- 2024년 총 920톤에서 2028년 2,285톤으로 연평균 25% 증가 목표
- 2024년 농가 원물 구매 806,752천원에서 2028년 2,016,846천원 증대 목표

### 3) 공급시스템 구축 방향

#### 01 공급시스템 방향성

#### □ 행정주도형 모델 구축으로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

- 행정주도의 안정적 모델로 농가소득 증대와 익산시 식품기업의 안정적 운영
  - 안정적인 모델 구축을 위하여 행정의 적극적 개입 필요
  - 행정의 총괄 주체 명확화를 통한 발생하는 이슈 적극 대응
  - 지역농산물 활용 증대를 위한 지원 사업 발굴로 참여기업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

#### □ 참여주체 간 연계강화를 통한 사업안정화

- 사업참여주체 간 연계 강화 통한 사업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생산자단체-익산시-푸드통합지원센터-식품기업 간 역할 명확화
  -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추진, 익산시는 행정적인 절차 지원
  - 지역농협, 타 푸드통합지원센터와의 연계 강화

#### □ 과도한 재정투입 방지를 위한 정책사업 연계

- 기존 사업과의 정책 중복성을 고려하여 정책 간 조화 강화
  - 식품기업 지역농산물 체계 구축을 위한 기존 정책사업 연계 강화
  - (농산유통과) 차액지원사업, 지역농산물 상품화 비용 등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원료농산물 공급 활성화 등

#### □ 품목별 수급안정협의회를 통한 가격 결정

- 참여 주체의 가격결정 참여를 통한 기존 계약재배 문제점 개선
  - 품목별 수급안정협의회를 통한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하에 적정가격 결정
  - 품목별협의회 조직화를 통한 공급계약 및 가격결정 효율화

- 유형별 차액지원사업 모델 구축

## 02 농산물 가격결정 원칙

### □ 수급안정협의회를 통한 가격결정

- (구성)품목별 수급안정협의회 구성
- (참여)생산자, 푸드통합지원센터, 식품기업, 익산시, 전문가 참여
- 농산물 기준가격(객관적 데이터)및 공급가격(기업공급가)결정

### □ 참여기업 확대를 위한 공급가격 결정

- (단기)기업확대를 위한 기준가격 대비 낮은 공급가격 결정
- (장기)기준가격과 공급가격이 갭을 축소하여 차액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 □ 농업생산비 보전 이상의 공급가격

- 공급가격 결정시 농가의 소득안정화를 위한 농업생산비 이상 범위에서 결정
- 상생의 기업 맞춤형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을 위한 농가 소득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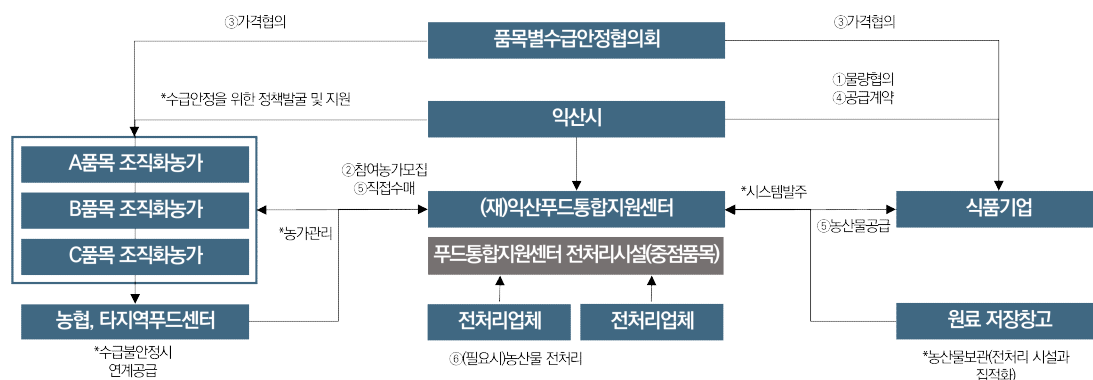
### □ 객관적인 데이터 활용 기준가격 결정

- 품목별 도매시장 데이터 활용
-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활용
- 품목별 전문가 자문 수렴

## 4) 공급실행 체계

### □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가절감과 제반비용 감소를 통해 기업 납품 경쟁력 확보 필요

- 현재 시스템은 원가 상승 요인이 크며, 기업 제안가는 낮아 적정 가격 산출이 어려움



구분	주요내용
① 연간공급물량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기업 사용물량 및 품목, 전처리방법, 공급방법 등 협의</li> <li>•익산시, 푸드통합지원센터, 식품기업 협의</li> </ul>
② 참여농가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 맞춤형 농산물 수급안정에 참여할 품목별 농가 모집</li> <li>•익산시, 푸드통합지원센터협력</li> </ul>
③ 공급가격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목별 수급안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적정가격 협의</li> </ul>
④ 공급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가(협약제), 익산시(푸드센터협력), 식품기업 간 공급계약</li> </ul>
⑤ 직접수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푸드통합지원센터농가조직화 및 직접 수매</li> <li>•농가는 계약물량 푸드통합지원센터에공급</li> </ul>
⑥ 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푸드통합지원센터는식품기업 발주에 맞게 전처리</li> <li>•시설 부족식품목별 전문 전처리기관과 연계하여 추진</li> </ul>
⑦ 농산물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푸드통합지원센터는식품기업에 농산물 공급</li> </ul>

## □ 익산시 기존 행정주도형 모델은 HACCP인증 식품기업 납품 매뉴얼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워 조정 필요

### ☐ 행정주도형 모델안



- 총괄 주체가 미비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에 조율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 익산시 직접 계약 시 HACCP인증 기업 납품이 어렵기 때문에 개선안 필요
- 행정주도형 모델은 신뢰도 향상과 가격경쟁력 확보에 용이하나 계약과 실행주체 이원화로 지원 받는 농가 및 기업의 혼란 발생 가능

## □ 기존 행정주도형 모델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 제시

- 익산시 원재료 공급 총괄관리 체계 구축과 농가계약(익산시-재단-농가), 식품기업계약(익산시-재단-기업)계약을 통해 역할 명확화와 더불어 식품기업에 납품 공급 체계 구축
- 전담하는 총괄부서와 더불어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역할 명확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운영 가능

☑ 행정주도형 모델 개선(안)



구분	주요내용
익산시(농산유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산시 관내 식품기업 원재료 공급체계 총괄 관리</li> <li>• 익산시, 출하농가협의회, 식품기업,푸드통합지원센터3자간 계약</li> <li>• 지역농가의 사업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사업 발굴</li> <li>• 지역농산물 활용 차액지원 사업 및 상품화 지원</li> </ul>
익산시(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기업 참여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 진행</li> <li>• 추가식품 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li> </ul>
생산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계약물량 이행</li> <li>• 관내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품목의 다양화</li> <li>• 저온저장시설 보유한 농가의 경우 농산물 저장 지원</li> </ul>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농가, 식품기업 등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운영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에 따른 농가 관리, 조직화, 생산력 향상 교육 등 진행</li> </ul> </li> <li>• 기업 맞춤형 농산물 수급사업 위탁운영 (수발주, 물류 등)</li> <li>• 참여농가 모집, 참여농가 생산관리 등 농가관리</li> <li>• 배상책임보험 가입</li> </ul>
식품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물량 수급 이행</li> <li>• 식품 원재료의 지역농산물 활용 확대</li> </ul>

## 5) 가격결정 및 차액지원 시나리오

### 01 차액지원 및 상품화 비용 지원 필요성

□ 농가의 소득향상과 (재)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차액지원 및 상품화 비용 지원 필요

- 기업의 경우 기존 거래가격에 맞추어 거래가 제시
  - 기업의 제안가는 저렴한 원물과 품목별 경쟁력 있는 전처리업체를 통하여 납품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 거래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음
- 단기적 관점에서 차액 지원을 통하여 익산시 농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 필요

- 중장기적 보완 단계 이전 식품기업에서 요구하는 단가 및 품위를 맞추기 위하여 차액 지원 및 상품화(전처리)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 필요

〈표〉 유형별 차액지원 이슈 및 지원 방향

유형	차액지원 이슈	차액지원 방향
원물공급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가격(적정가) 결정에 대한 기준(안) 부재</li> <li>• 식품기업의 교섭경쟁력이 농가에 비해 높아 공급가격이 불합리적으로 낮아져 차액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익산시 도매시장 가격 대비 85%농가 소득 보장 *85% 기준 : 도매가격 대비 농가수취가격에 수확상차비등 생산자 운임 포함</li> <li>• (중장기) 재단 농가 조직화를 통한 원물 가격 하락 및 시설 지원 등을 통한 공급 결정가격에 맞출 수 있는 여건 마련</li> </ul>
	- 주요품목 : 무, 배추, 마늘 등	
연중공급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중공급형 품목은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으로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필요</li> <li>• 변동성이 높은 품목의 차액지원으로 농가소득 안정화</li> <li>• 기업 공급가격이 낮아질 경우 차액지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가격변동리스크가 큰 품목으로 농가출하액*1.1 - 도매시장 3개년 평균 값 지원 및 전처리비 50% 지원</li> <li>• (중장기) 재단 수매가격 마련으로 직접 수매를 통한 원물 구매 가격 하락 및 직접 전처리를 통하여 차액지원 범위 축소</li> </ul>
	- 주요품목 : 대파, 양배추 등	
저장공급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 대상 차액지원으로 지역농협의 참여 동기 유도 및 안정적인 물량 확보 가능</li> <li>• 수매가격(결정된 수매가격에 수동적 참여)에 따른 차액지원 비용 증가</li> <li>• 직접적인 계약재배 대비 유통경로에 따른 비용 증가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원물 수매가 및 자연감모비용보전(품목별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한 차액 지원 범위 설정), 전처리비 50% 지원</li> <li>• (중장기) 재단 수매가격 마련 및 직접 전처리와 저장시설 확보로 기업 공급가격에 맞출 수 있는 여건 마련</li> </ul>
	- 주요품목 : 생강, 양파, 감자, 당근, 마늘 등	

\* 품목별 기업 납품 형태에 따라 공급유형은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02 가격결정 프로세스(총괄)

### □ 공급 시기 및 전처리 방식 등에 따른 품목별 지원 방식 설정 필요

- 저장공급형 품목은 광역시를 제외한 154개 시군 가격 분석을 통하여 익산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정 차액 지원 범위 설정

〈표〉 중점 및 육성품목 가격결정 프로세스(총괄)

유형	품목	공급방식	전처리방식	지원방식	비고
연중 공급형	대파	계약재배	탈피, 세척	농가요구가*1.1- 도매시장평균가차액	
	양배추	계약재배	세척, 절단		
저장 공급형	생강	수매 및 계약재배	탈피세척, 박피세척	(정률) 20%내 지원, 전처리 비용 지원	
	양파	수매 및 계약재배	탈피, 세척	(정률) 15%내 지원, 전처리 비용 지원	
	감자	계약재배	탈피, 세척	(정률) 13%내 지원, 전처리 비용 지원	
	당근	계약재배	세척, 박피	(정률) 18%내 지원, 전처리 비용 지원	
	마늘	계약재배	탈피, 씨제거, 세척	(정률) 19%내 지원, 전처리 비용 지원	
원물 공급형	무	계약재배	필요 없음	(정률) 수확시기 익산시 도매시장가의85% - 기업적정요구가 차액 지원	85% 비중은 유동적으로 변경 될 수 있음
	배추	계약재배	필요 없음		
	마늘	계약재배	필요 없음		

\* 품목별 기업 납품 형태에 따라 공급유형은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03 2024 차액지원 시나리오

#### □ 연차별 물량 증대에 따른 차액지원 시나리오

- 2024년 305,069,400원에서 2028년 725,356,700원으로 연평균 24.3% 증대 목표

〈표〉 차액지원 및 상품화 지원 투자계획 총괄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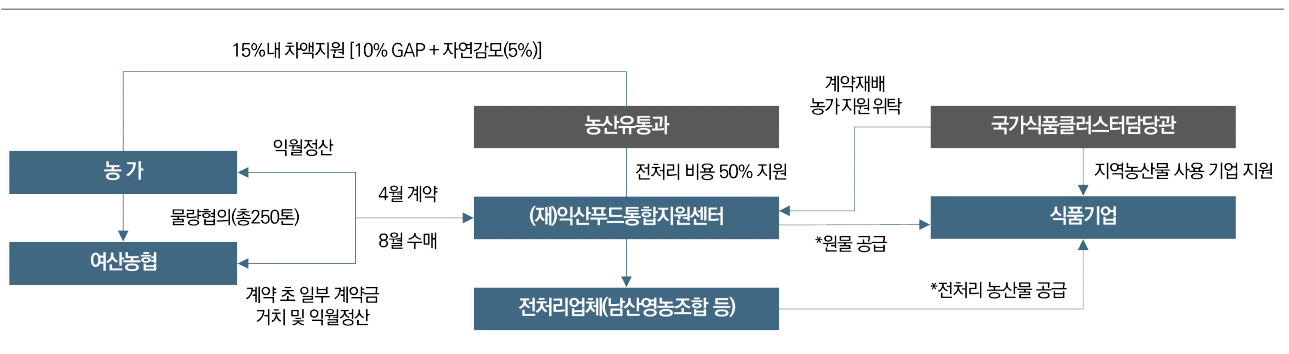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양파	차액지원	31,612,500	37,935,000	44,257,500	50,580,000	63,225,000
	전처리지원	62,500,000	75,000,000	87,500,000	100,000,000	125,000,000
대파	차액지원	25,000,000	30,000,000	37,500,000	45,000,000	52,500,000
	전처리지원	25,000,000	30,000,000	37,500,000	45,000,000	52,500,000
생강	차액지원	18,346,400	22,933,000	27,519,600	32,106,200	36,692,800
	전처리지원	37,500,000	46,875,000	56,250,000	65,625,000	75,000,000
마늘	차액지원	39,510,500	55,314,700	71,118,900	86,923,100	102,727,300
	전처리지원	21,850,000	30,590,000	39,330,000	48,070,000	56,810,000
무	차액지원	43,750,000	52,500,000	61,250,000	70,000,000	78,750,000
	전처리지원	-	-	-	-	-
감자	차액지원	-	-	4,137,900	5,517,200	6,896,500
	전처리지원	-	-	7,500,000	10,000,000	12,500,000
배추	차액지원	-	-	25,200,000	37,800,000	50,400,000
	전처리지원	-	-	-	-	-
당근	차액지원	-	-	1,001,700	2,003,400	3,005,100
	전처리지원	-	-	1,250,000	2,500,000	3,750,000
양배추	차액지원	-	-	4,200,000	4,900,000	5,600,000
	전처리지원	-	-	-	-	-
차액지원		158,219,400	198,682,700	276,185,600	334,829,900	399,796,700
전처리지원		146,850,000	182,465,000	229,330,000	271,195,000	325,560,000
합계		305,069,400	381,147,700	505,515,600	606,024,900	725,356,700

## 6) 품목별 공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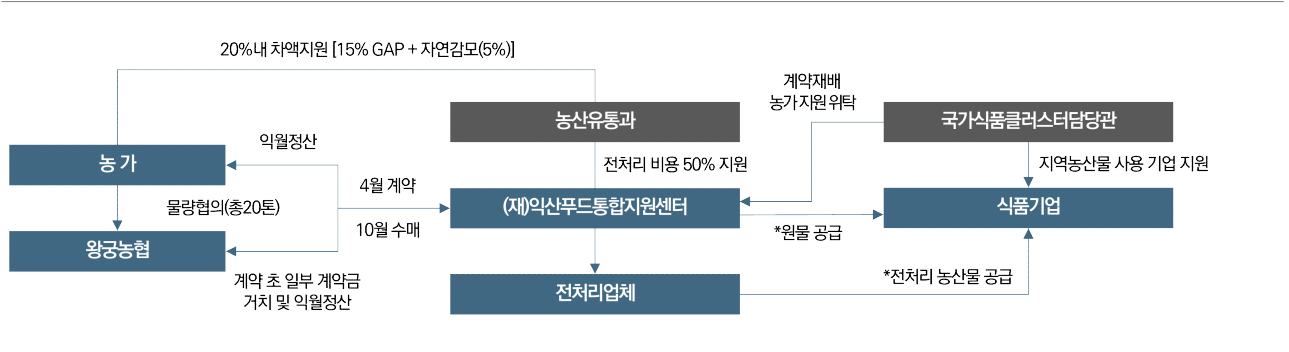
### □ 중점품목 공급 체계

- 1월 말 ~ 2월 초 해당 식품기업 대상 설명회 진행 및 익산시(농산유통과),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농가 및 식품기업 3자간 계약(연간 물량 확정 및 최종 납품가 확정)
- 물량 확정에 따른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농가 조직화 및 계약재배 농가 지원(종자 및 비료 등), 지역농산물 우수 기업 대상 저온저장고 및 물류비등 지원(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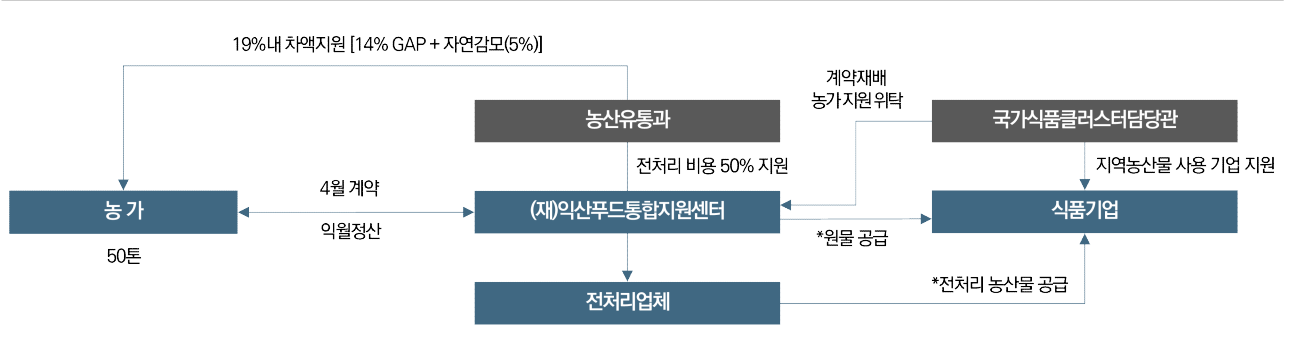
〈표〉 품목별 공급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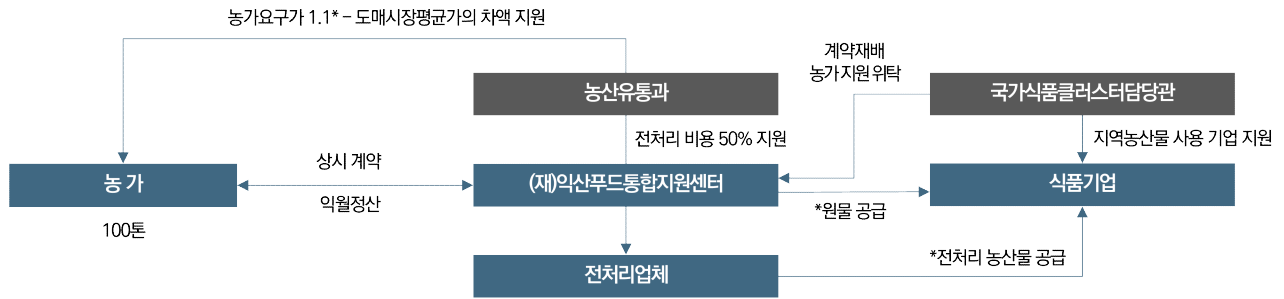
양파 공급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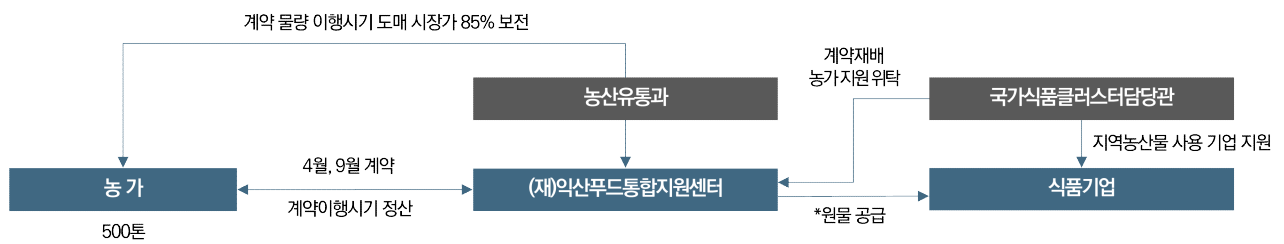
생강 공급 체계도



마늘 공급 체계도



대파 공급 체계도



무 공급 체계도

## 제5장. 참여기업 활성화 방안 및 인센티브

### 1) 참여활성화 방안

#### □ 기업 공급가 경쟁력 확보

- 식품기업 참여 유도를 위하여 기업이 원하는 공급가를 맞출 수 있는 여건 구축 필요
- 중장기적인 보완을 통하여 기업 공급가 경쟁력 확보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경쟁력 확보 필수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전처리 여건 개선 및 구매자금 확보등을 통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요구가를 맞추어 공급가 경쟁력 확보

#### □ 참여농가 시설 및 재배기술 교육 지원

- 참여농가 생산량 증대와 더불어 안정적 생산을 위한 시설 현대화 및 재배기술 교육 등 제공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조직화 된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량 증대
- 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사업으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시비 매칭을 통하여 부담 완화 필요
  - H/W 사업의 경우 매칭되는 자부담 크기 때문에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비 추가 매칭 및 추가 지원사업 발굴 필요

#### □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 식품기업 지원 관련 국비, 도비, 시비 사업 중 도내 농산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시군 평가 사업 가점 부여
- 관내 농산물을 활용 우수기업을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 도비, 시비 등 익산시 평가 사업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익산시 추가 사업 발굴을 통하여 지역농산물 활용 기업 추가 지원

#### □ Start-up 기업 육성

- 익산시 관내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초기 식품 개발단계에서 익산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 기존 식품기업의 경우 거래가가 정해져 있어 공급가 결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물량은 적으나 추후 확대 기대

## 2) 참여기업 인센티브 사업

□ 익산시 참여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지방비, 시비 등의 사업을 활용하여 관내 농산물 활용기업 인센티브 제공(기존사업)

〈표〉 인센티브 가능 사업 목록

구분	지원 유형	사업명
전라북도 (전북바이오 융합산업진흥원)	기업	전라북도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육성지원
	기업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생산자	농업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전라북도	기업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생산자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기업	농식품기업 HACCP컨설팅 지원사업
	기업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기업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생산자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생산자	원예농산물 시설 및 장비 지원
익산시 (국가식품 클러스터)	생산자	국가식품클러스터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
	기업	식품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
	기업	국내 식품박람회 참여업체 부스비지원
	기업	소규모 식품제조기업 포장재 지원
익산시 (농산유통과)	생산자+기업	식품기업 지역농산물 연중 안정공급을 위한 차액지원
	생산자+기업	식품기업 지역농산물 상품화 비용(전처리등) 지원

□ 익산시 참여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시비 사업 발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필요

- (제안1) 식품제조기업 자온저장고 지원사업
  - 계약재배 수매 농산물 저장을 위한 저온저장고 신축(활용율 증대를 위해 최소 66㎡ 이상 건축)
- (제안2) 농식품원료중계공급센터 물류비 지원 사업
  - 관내농산물을 사용하는 식품제조기업에 원료중계공급센터 냉장·냉동 창고 임차비 30% 지원
  - 식품기업당 연간 최대 3백만원 지원
- (제안3) 익산시 지역농산물 상생협력 경진대회
  - 우수기업에선발된 기업 발전금지급과 더불어 마케팅·홍보 및 인증비 지원
  - 우수사례기업 영상 촬영,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한 지역농산물 활용 우수 기업 홍보
- (제안4) 식품제조기업 청년인턴십 지원 사업
  - 식품전공 청년(만 34세 이하)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인턴십 기간(최대 3개월)인건비 지원 (기업당 최대 3명) ※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고용